



박종준
외환선물(주) 국제영업팀 팀장

내년도 미국의 옥수수 수급 및 가격 전망

◆ 07/08 crop

급속도로 팽창하고 있던 에탄올 산업의 성장세와 발맞춰 옥수수에 대한 폭발적인 수요 욕구는 2006년 한해를 걸쳐 올해 초까지 경이적인 옥수수가격 급등에 결정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세계 최대의 옥수수 생산국인 미국의 농부들은 이와 같은 이례적인 옥수수 가격급등을 보면서 자신의 농지에 더 많은 옥수수를 심고자 하는 의사결정은 어찌 보면 당연할 결과로 받아들여진다.

올해 3월 미 농무부의 *Planting Intention Report*에서 발표된 미 농부들의 옥수수 파종의

사 규모는 역대 최고의 파종규모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9천만 에이커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6월에 발표된 *Planted Acreage Report*에서는 3월보고서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9,288만 에이커로 발표되었으며 지난 10월 수

도표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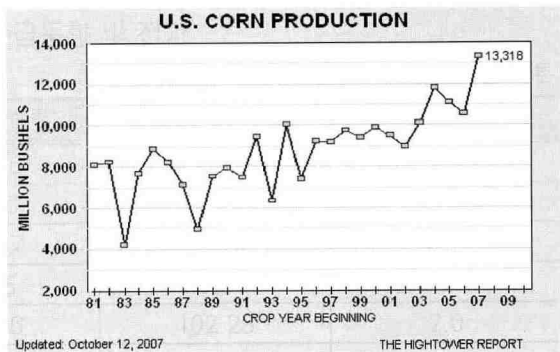


도표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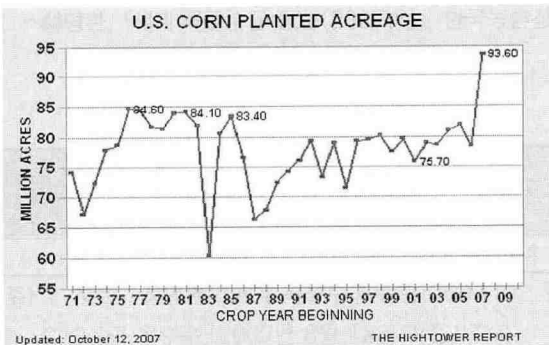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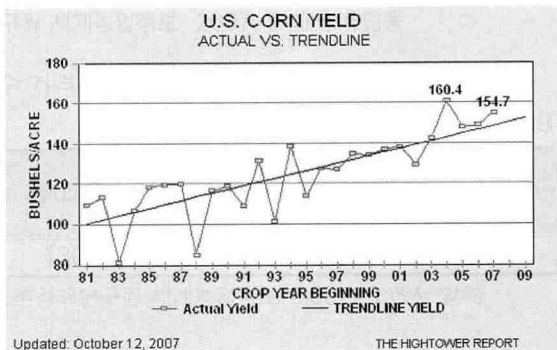


도표 3



급보고서에서 미 옥수수 파종규모 전망치가 9,360만 에이커로 상향조정 되어 발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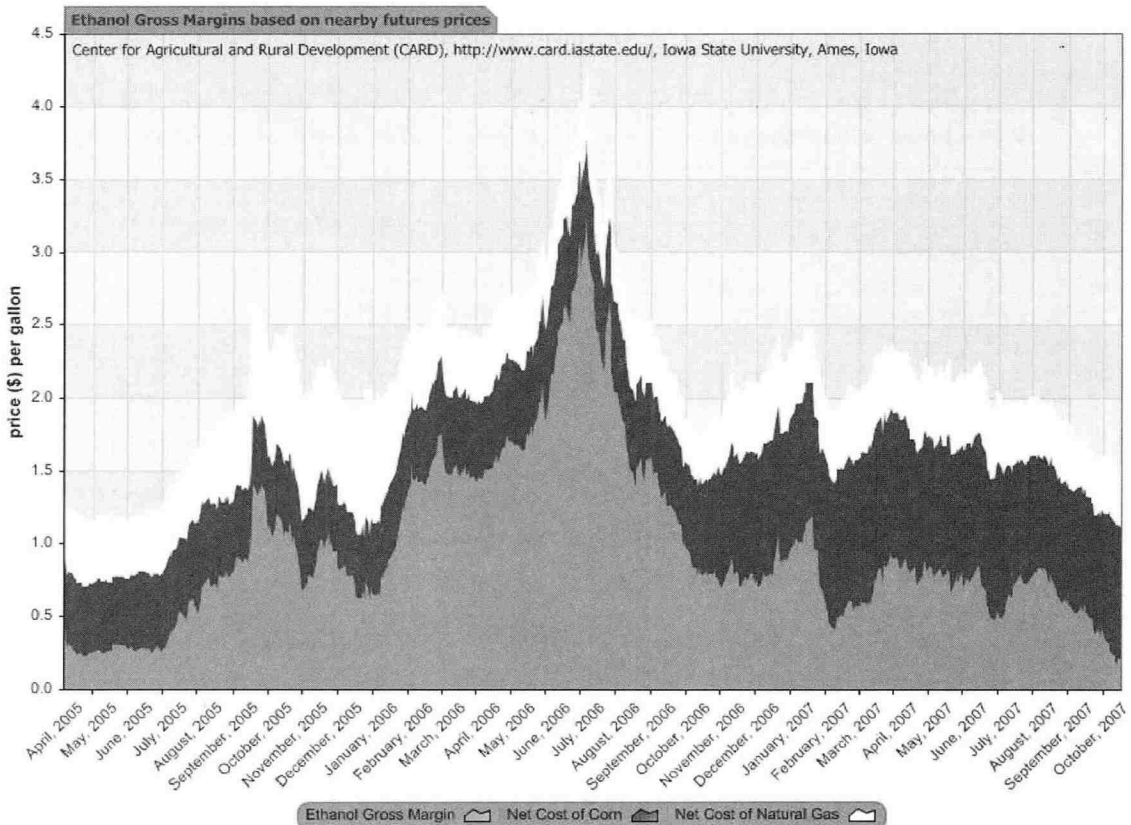
여기에 올해 주요 생장시기의 양호한 날씨전개로 미 옥수수 yield는 과거 추세선과 점차 멀어지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힘입어 올해 미 옥수수 생산량 전망치는 역대 최고수준인 3억3,830만톤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여타 주요 옥수수 생산국의 올해 생산량 증가폭이 크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올해 전세계 옥수수 생산 증가는 미국의 옥수수 생산량 급증에 기인한바가 크다. (도표 1, 2, 3)

이와 같이 미국의 올해 옥수수 생산량이 역대

최고수준이 될 것이라는 시장의 인식이 확대되면서 옥수수 가격 급등에 대한 시장의 경계심리는 점차 고개를 들기 시작했으며 결국 지난 6월 중순이후 옥수수 가격 하락세로 돌아서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옥수수 가격 급등은 에탄올 생산마진의 심한 압박요인으로 작용하면서 결국 에탄올 생산용 옥수수 수요의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시장내에서 인식했다는 점도 역으로 옥수수 가격을 끌어내리는데 일조한 것으로 보여진다. (도표 4)

도표 4





◆ 08/09 crop

가. 생산전망

내년도 옥수수 파종규모와 관련한 아이디어는 올해 옥수수 가격 대비 대두, 소맥 가격의 상대적인 강세로부터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소맥가격은 주요 생산지역의 날씨악화에 따른 공급불안요인이 대두되면서 올해 6월초 본격적인 상승세를 나타냈으며 지난 9월말에는 사상 최고가(CBOT 12월물 961.75)를 기록하는 급등세를 이어나갔다.(도표 5) 대두가격 또한 올해 유례없는 파종면적 급감을 기록하면서 소맥가격과 더불어 가파른 가격 상승세를 기록 중이다.(도표 6)

도표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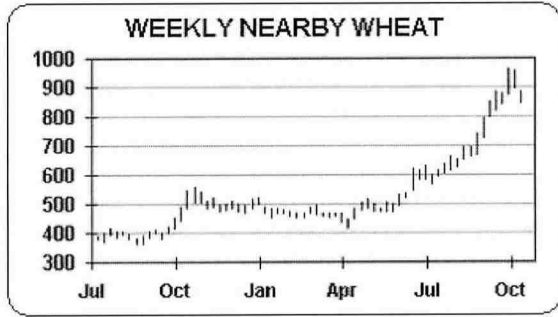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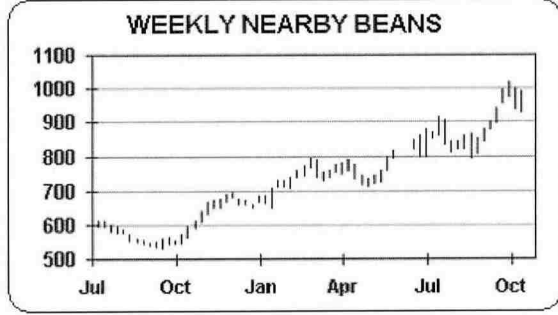


도표 6



내년도 작물 파종시즌에 임박해서 현재의 옥수수 대두, 옥수수-소맥간의 가격격차가 상당히 좁혀지지 않는한 올해 옥수수 재배지역의 상당수는 대두, 소맥 등 다른 작물로 전환될 가능성은 매우 높으며 이로 인해 내년도 옥수수 파종면적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까지 주요 예측기관의 내년도 옥수수 파종면적 감소폭은 올해대비 7.5백만~8.5백만 에이커로 총 파종면적은 8,510만~8,610만 에이커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내년도 옥수수 yield를 올해와 비슷한 155 bpa를 유지한다고 가정했을 때 예상되는 내년도 옥수수 생산량은 3억 552만톤~3억 946만톤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나. 소비전망

현시점에서 내년도 옥수수 수요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것이 사실이나 올해에 이어 내년도도 완만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 소맥가격 급등과 유럽지역의 불안정한 사료용 소맥공급 상황은 상대적으로 미산 옥수수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미 농업부의 *Hogs and Pigs Report*에 따르면 올 3분기 돼지 도축두수가 당초 예상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올해말까지 돼지 도축량은 약 3%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사료용 옥수수 가격 급등으로 인해 돼지사육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미국내 돼지 도축두수는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사료용 옥수수 수요의 증가세를 이끌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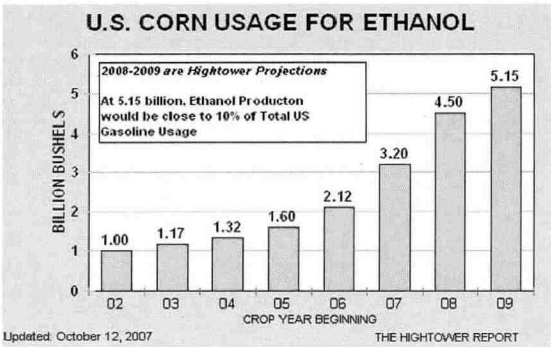
미국의 7월 에탄올 생산량은 일일 421,000 배럴로 전월대비 0.7% 증가하였으며 전년 동기

송년특집② : 출렁이는 세계사료곡물 그 실체를 알아본다

대비 33.2% 증가를 보였다.

현재 미국내 131개 에탄올 공장에서 연 692억 배럴을 생산중에 있으며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73개 공장과 10개의 확장설비를 포함하면 연간 생산량은 13억 4천만 배럴로 증가한다. 현재 미 의회에서 추진중인 새로운 재생연료 의무 사용 법안 통과가 관련 이익단체들에 의해 난항을 겪고 있으나 법안이 통과되면 미국의 바이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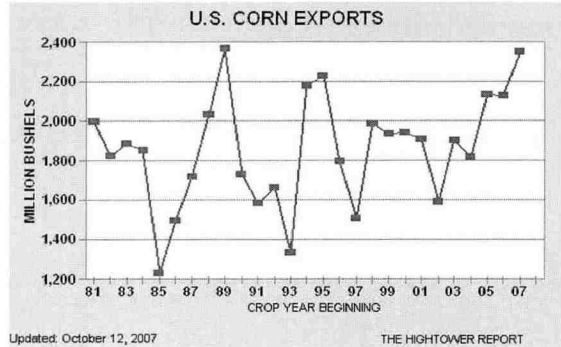
도표 7



연료 생산은 상당히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향후 에탄올 생산에 필요한 옥수수 사용량도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도표 7)

올해 미국의 옥수수 수출량은 전세계적인 사료용 곡물생산 감소와 2년연속 세계 소맥 생산 감소, 그리고 중국의 옥수수 수출량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10.6% 증가한 5,969천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표 8). 반면 내년도 미 옥

도표 8



US Corn Supply/Demand Balance(Million bushels)

	04/05	05/06	Oct USDA 06/07	Oct USDA 07/08	08/09
Planted Acres	80.9	81.8	78.3	93.6	85.6
Harvested Acres	73.6	75.1	70.6	86.1	78.1
Yield(bpa)	160.4	148.0	149.1	154.7	155
Begin Stk	958	2,114	1,967	1,304	1,997
Production	11,807	11,114	10,535	13,318	12,106
Import	11	9	12	15	15
Total Supply	12,776	13,237	12,514	14,637	14,118
Feed Use	6,158	6,141	5,600	5,700	5,800
F/S/I	2,686	2,981	3,486	4,590	5,260
Ethanol for Fuel	1,323	1,603	2,115	3,200	3,900
Exports	1,818	2,147	2,125	2,350	2,190
Total Use	10,662	11,270	11,210	12,640	13,250
Ending Stocks	2,114	1,967	1,304	1,997	868
Stocks/Use Ratio	19.8%	17.5%	11.63%	15.80%	6.6%

수수 생산량 감소전망에 따라 수출량 또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 가격전망

최근 옥수수 가격움직임은 미 농무부의 new crop 수급보고서가 처음으로 발표되는 5월을 전후로 하여 급격한 추세전환을 보이고 있다. 이는 3월의 *Planting Intention Report*와 6월의 *Planted Acreage Report*를 통해 한해 파종규모 및 생산량에 대한 윤곽이 드러나는 시점과 맞물려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올해 2월말 최고가격인 ¢437.25를 기록한 이후 3월부터 본격적인 하락세를 나타냈으며 아

직까지는 장기 하락추세가 유효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올해 수급상황을 고려해보았을 때 옥수수 가격은 적어도 올해말까지는 현재의 장기 하락추세를 크게 이탈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7월 저가인 ¢310선은 향후 추가약세에 있어서 주 하락목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주저항대인 ¢370~380선은 향후 추가상승에 있어서 주 상승목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올해말 이후 내년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격 상승 리스크는 클 것으로 예상된다. 3월 *Planting Intention Report* 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파종면적 감소에 대한 시장의 기대심리 반영과 수확시즌인 남미를 포함한 주요 생산지역

〈CBOT 옥수수 근월물 차트〉





의 날씨 악화 변수 등이 내년초 가격 상승세의 주요 변수로 예상된다. 과거 경험상 미 옥수수 기말재고율과 옥수수 가격간의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95/96년 미 옥수수 기말재고율 5%를 기록했을 때 1월~5월 기간동안 옥수수가격 거래범위는 $\text{¢}347 \sim \text{¢}536$ 으로 나타났으며 2003/04년도 9%의 기말재고율을 기록했을 때 같은 기간 동안 $\text{¢}245 \sim \text{¢}335$ 의 거래범위를 기록하였다. 따라서 내년도에 예상되는 약 6.6%의 기말재고율 하에 파종시즌을 전후로 옥수수 가격 거래범위는 $\text{¢}380 \sim \text{¢}440$ 으로 예상된다.

올해 성장기간 동안 양호한 날씨 전개로 수확 진행이 예년에 비해 빠르게 전개되고 있고 yield 및 생산량 수준도 향후 발표될 수급보고서에서 보다 상향조정될 전망이다. 이는 당장 옥수수 가격의 주 하락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어 당분간 가격상승은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옥수수 선물시장내 내년도 수급전망에 대한 강제인식은 점차 강화되고 있으며 이는 현 수급상황에 대한 시장 내 약세인식을 점차 잠식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향후 옥수수 가격 급변동에 대비한 적절한 헤지전략을 미리 준비해야할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